11월 24일 AI 아침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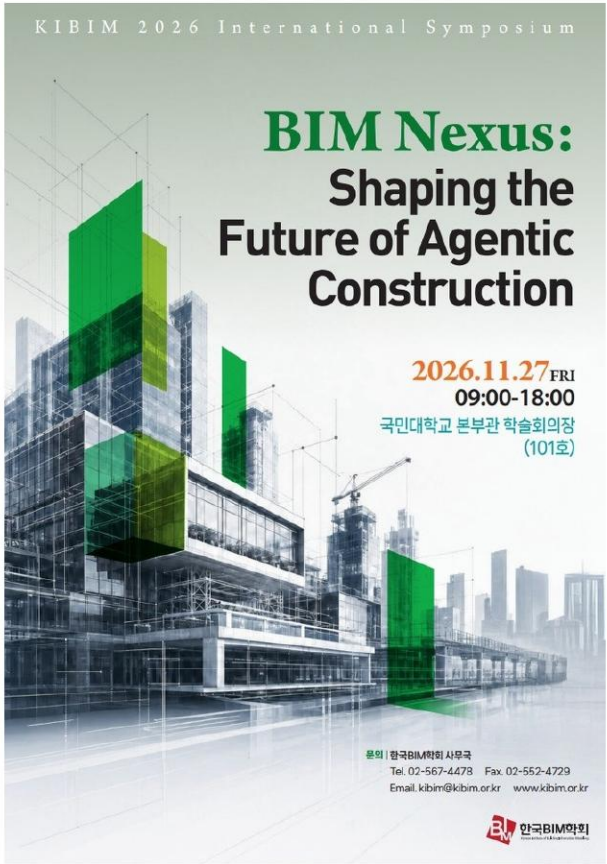
국내 소식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BIM·AI 융합 학술행사, 국내 대학의 의료 AI 연구 성과, 그리고 정부 AI 예산 관리 실태를 다룬 보도입니다.

---

1. BIM학회, 27일 국제심포지엄…'에이전틱 건설'과 설계BIM 대가기준안 공청회

구분: 건설·BIM AI **일자·출처**: 2026-11-23, 대한경제 보도(한국BIM학회 발표)

- 한국BIM학회(회장 추승연)가 11월 27일 서울 국민대학교에서 '2026 한국BIM학회 국제심포지엄'을 엽니다. 주제는 'BIM Nexus: Shaping the Future of Agentic Construction'입니다.
- 핵심 주제는 BIM이 설계·정보관리 도구를 넘어, AI가 건설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무를 스스로 계획·수행하는 '에이전틱 건설(Agentic Construction)'의 기반으로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디지털 트윈, 로보틱스와의 융합도 함께 다룹니다.
- 기조강연에는 스노헤타(Snohetta)의 에밀리 얀 디렉터, 쿤달(Cundall)의 동 첸 파트너, 야부키 노부요시 일본 동경도시대 교수, 관 팅 홍콩BIM학회 회장, 오토데스크코리아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 전문 세션에서는 AI 기반 설계검토와 자동화, 건설로봇, 스마트 인프라 기술 등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의 AI 활용 사례가 소개됩니다.
-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국가철도공단의 '설계BIM 대가기준안' 공청회입니다. 국토교통부,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스마트건설 정책과 BIM 활성화 방안도 논의합니다.
- 주의: 학회 발표를 바탕으로 한 행사 안내 보도로, 세부 프로그램은 예정 기준입니다. 참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BIM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1201258177420937

2. 한동대 연구팀, 약물 상호작용 위험 줄이는 의료 AI…CIKM·AMIA서 잇달아 발표

구분: 국내 AI 연구 **일자·출처**: 2026-11-23, 베리타스알파 보도(한동대 발표)

- 한동대 AI컴퓨터전자공학부 홍참길 교수 연구팀이 여러 약을 함께 처방할 때 생기는 위험을 줄이는 AI와, 신약 후보물질의 체납 거동과 독성을 예측하면서 이유까지 설명하는 AI를 국제학술대회 2곳에서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 첫 번째 연구 'IM³'(ACM CIKM 2026 정규 논문, 로마)는 약물 간 상호작용(DDI)을 다룹니다. 기존 처방 추천 AI가 환자 진료기록과 약의 분자구조를 주로 봤다면, 이 연구는 양자화학 계산으로 얻은 약의 전자적 특성과 상호작용 정보까지 함께 살피도록 했습니다. 실제 중환자실 데이터 실험에서 약물 간 상호작용 위험을 크게 낮추면서 처방 예측 성능은 높게 유지했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 두 번째 연구 'READ-ADMET'(AMIA 2026 구두 발표, 댈러스)은 신약 후보물질의 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ADMET)을 예측하는 AI 에이전트입니다. 검색증강 기술과 대규모 언어모델을 결합해, 예측하려는 약과 비슷한 기존 분자 사례를 먼저 찾고 예측 결과와 신뢰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설명을 함께 내놓습니다.
- 두 논문 모두 학생(김유진·박서은·정희서)이 핵심 역할을 맡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디지털분야글로벌연구지원사업으로 UC샌타크루즈와 진행 중인 국제 공동연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 주의: 대학 발표를 바탕으로 한 보도로, 성능 수치의 독립적 재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회 발표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원문: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782

3. “돈 풀고 관리는 뒷전”…정부 AI 예산 부실 관리 실태 보도

구분: AI 산업·정책 **일자·출처**: 2026-11-23, MTN 머니투데이방송 특별기획 보도

- MTN이 특별기획 'K-AI 현장을 가다'에서 정부 AI 예산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정부 AI 예산은 2025년 3조 3000억원에서 올해 9조9000억원, 내년 16조원대로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지원 방식과 평가 기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 AI 바우처 사업에서는 서류상 계약 219건 가운데 실제 제작은 2건에 그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기술과 인력이 없는 업체가 서류를 꾸며 지원금 2억4000여만원을 챙겼고, 감독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걸러내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1조6000억원이 투입된 AI 학습용 데이터 사업에서는 학습이 불가능한 중복·오류 데이터가 절반 이상인 곳도 있었고, 오류 데이터를 납품한 업체 65곳은 이미 폐업해 수정조차 못 하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 국정감사(10월 27일)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은 '국내 AI 솔루션' 상당수가 챗GPT나 제미나이를 연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왔고, MTN 취재에서는 시범운영 자율주행차 방치, 중국산 AI 하드웨어 외형만 바꿔 납품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계획서 심사로 사전에 지원금을 주는 현행 방식이 지원금만 타내는 행태를 반복하게 한다며, 성과를 기반으로 한 사후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이성엽 고려대 교수 인용).
- 주의: 구체 사례와 수치는 MTN 취재와 국감 발언을 인용한 보도 기준입니다. 예산 규모는 정부 발표와 대체로 부합하지만 세부는 보도 인용임을 밝힙니다.



원문: https://news.mtn.co.kr/article/202611231555488203 1